

번호 III-9

제 목	국문	결식아동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Unprivileged Children without Lunch			
저 자 및 소 속	국문	진진호 · 박장숙 ¹⁾ · 박수경 · 손혜숙 · 이종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¹⁾ · 인제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영문	<i>Jin-Ho Chun, Jang-Sook Park¹⁾, Soo-Kyung Park, Hae-Sook Sohn, Jong-Tae Lee</i>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Inje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점심을 굶는 결식아동이 국가적 경제위기상황 발생 이후 급증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결식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결식아동과 일반아동의 특성을 비교 관찰함으로써 결식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p> <p>2. 연구 방법</p> <p>연구대상은 방학 중 부산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해 결식지원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결식아동 104명과 1개 초등학교의 일반아동 110명이었으며 연구기간은 1999년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였다. 조사는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ver 7.5)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p> <p>3. 연구 결과</p> <p>대상자는 성별, 학년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결식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결손가족이 많고, 부모직업이 불안정하고, 정부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결식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가정분위기에 불만족하는 경향이 높으며, 사회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p < 0.05$). 심리적으로는 가출과 자살의 충동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현재고민과 고민상담자, 도움방법,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는 양 군간에 차이를 보였다($p < 0.05$). 결식아동의 결식 지원을 받은 기간은 88%가 1년 미만으로 대부분 이었으며, 68% 정도가 지원에 만족하며 감사함을 느꼈다. 결식 지원을 받은 방법으로는 급식비(73%)와 먹거리 지원(76%) 등이 많았으나 선호하는 방법은 생활비 지원(43%)이었고 67%가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마음의 지원을 원하였다.</p>					

4. 고찰

결식아동은 결식지원에 대해 만족과 감사의 긍정적 태도를 갖고있으나, 환경적 요인 즉 가난, 부모의 실직과 불안정한 경제상태, 결손가족, 불만족스러운 가정분위기와 가정내의 불만 등으로 인하여, 일반아동에 비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학교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부적응과 집단따돌림을 많이 겪는 등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므로 결식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결식아동의 손상된 정서를 회복시키고, 사회적인 소외현상을 해결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적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심리적 측면까지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결식을 유발하는 근원적인 환경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